

# 濟州島俗談의 形態

高 在 奐

## < 目 次 >

- I. 序
- II. 分類의 檢討
- III. 分 類
  1. 一 般 型
  2. 特 殊 型
- VI. 結

## I. 序

俗談을 일컬어 ‘날개 있는 말 :Gefliigelte Wort’ 이니, ‘주인 없는 재산 :Herrenlose Gut’ 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通俗性이 강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대화가 있는 곳이면 바늘 가는 데 실 따라 가듯이 부담 없이 활용됨으로써 언어생활의 潤滑油 구실을 한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귀천은 물론 有·無識이나 전문·비전문이 따로 없이 일상 생활에서 두루 쓰인다. 또한 時空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적재적소라고 생각되면 公과 私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慣用的 通俗性과 傳播力에서 그 어느 口碑文學보다도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俗談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형태와 기능이 복합된 구조적 특성에 있는 것이다. Howell이 삼요소로 내세운 간결 (shortness)·의미 (sense)·짤맛 (solt)<sup>1)</sup>이나, Friedrich Seiler의 저서 「獨逸俚諺學 :Deutsche Sprichwörterkund」<sup>2)</sup>에서 俗談은 교훈적 요소와 인상적인 표현형식을 가지고 衆人의 입전에 오른 고정된 문구라고 정의하고, ‘간결한

1) 徐石演 ; 「獨逸俗談管見」—우리말 俗談과 對比해서—朴仁守博士 華甲記念論叢. 同記念論文集 刊行會. 1974. p. 134.  
2) 徐石演 ; 前掲書 p. 137.  
3) 金思燁 ; 「俗談論」大建出版社. 4286 (1953). p. 9참조  
4) 徐石演 ; 前掲書. pp. 130~131참조

인상적 형식'을 4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또 李殷相<sup>5)</sup>도 Howell의 삼요소에 동조하면서 속담은 음성의 快味로부터 기억의 편의를 얻기 때문에 諺形이 詩形과 같은 배치로 되었다고 했고, 沈在箕<sup>6)</sup>는 統辭構造인 외형구조와 의미구조를 속담의 분석검토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 뒤 형식구조의 특성으로 운율적 조화와 통사적 구조를 중시했다.

이렇듯 俗談이란 간편한 형태에서 짜릿한 자극과 인상적인 뉴앙스가 시적 표현<sup>7)</sup>으로 나타난 獨自性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속담의 구조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은 속담연구의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先學<sup>8)</sup>들에 의해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뒷장 分類의 檢討에서 논의하겠지만 형태분류의 관점과 그 유형의 명칭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여 외형구조 면에서라도 보편화시킬 수 있는 유형의 설정과 그에 따른 명칭도 고려되어야 할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비록 <濟州島 俗談의 形態>라는 郷土性을 띤 한정적 논제이지만 한국속담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유념하면서 필자가 제주도 속담으로 추정하여 수집선별한 530여편의 자료를 분석분류하였다. 그 결과 一般型과 特殊型을 上位型으로 하는 9개의 下位型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 유형별 명칭의 命名化를 시도하였다. 다만, 律格과 修辭에 따른 형태는 표현수법인 기교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논문으로 마련될 <濟州島 俗談의 表現技法>에서 다루기로 한다.

## Ⅱ. 分類의 檢討

한국속담에서의 형태분류를 1984년 현재 필자가 입수한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二大領域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意味構造와 外形構造가 그것이다. 이제 이 두 영역별로 先學들의 밝힌 論著의 골격을 간추려 본 다음 종합적으로 구체적 검토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들춰 보겠다.

5) 李殷相 : 「俚諺의 意義 및 그 形式에 關하여」-朝鮮俚諺研究-東光10호, 1927, pp. 233~234

6) 沈在箕 :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冠嶽語文研究 第七輯 別冊 1982, pp. 223~226

7) 속담을 시적 표현인 문예에 결부시키고 있다.

李殷相 : 前掲書, pp. 235~238

金思燦 : 前掲書 pp. 20~21

金宗澤 :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국어국문학 34·35 合併號, 국어국문학 pp. 1967, p. 3

沈在箕 : 前掲書, p. 224

金善豊 : 「韓國民俗大觀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p. 565

8) 本文 <Ⅱ, 分類의 檢討>에 제시한 論著 참조

### 1. 意味構造의 領域

李殷相<sup>9)</sup>은 속담의 通俗性을 고려하여 그 민족의 습속에 의한 것과 인류전반에 상통하는 것으로 兩分하고 전자를 特殊俚諺 후자를 共通俚諺로 다루었는데 특수이인인 경우 <地理的 發生의 俚諺, 傳說的 發生의 俚諺, 人名·物名的 發生의 俚諺, 習俗的 發生의 俚諺, 史乘·制度的 發生의 俚諺> 등 5가지의 형성요인과 배경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姜在哲<sup>10)</sup>은 說話와 연관된 속담인 경우에 그 根源說話의 발생원리에 입각하여 설화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속담이 형성되었으면 先說話後俗談型, 속담이 먼저 있고 설화가 형성되었으면 先俗談後說話型으로 분류시켰다.

이상 두 분은 속담의 형성요인과 배경을 중심으로 發生原理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

金思燁<sup>11)</sup>은 역사적 구분에 의한 <上古諺, 中古諺, 近古諺, 近世諺, 現代諺>의 분류관을 제시하면서도 時空的 한계가 불분명함으로써 그 시행이 어렵고, 실제로는 <普通諺, 道諺, 郡諺, 鄉諺, 外來諺> 등 5가지 유형을 例示하고 있다. 이것은 속담의 의미구조를 共時性에 결부시킨 분류체계인 것이다.

金道煥<sup>12)</sup>은 그 論題가 말해주고 있듯이 한국속담을 심리적으로 분석하여 <嘲弄型, 攻擊型, 恨歎型, 教導型, 指示型, 要求型, 慰勞型, 告知型, 語戲型>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속담에 드러난 心理構造에 기반을 둔 것이다.

金宗澤<sup>13)</sup>은 <A型, B型, C型, D型, E型> 등 5가지 유형을 설정했다. 이것은 한국속담을 의미구조별로 구분하여 그 형태를 유형화시킨 것으로는 최초의 構造式이 되고 있다. 그러면 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으니, 구체적 검토부분에서 언급하겠다.

文貞子<sup>14)</sup>는 金宗澤의 분류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方鍾鉉편 「俗談辭典」에 수록된 3,409편을

9) 李殷相 ; 「特殊俚諺과 共通俚諺」- 朝鮮俚諺研究- 東光 13호, 1927. pp. 598~607

10) 姜在哲 ; 「韓國俗談의 根源說話」 白鹿出版社, 1980. pp 24~27

11) 金思燁 ; 前掲書, pp. 26~27

12) 金道煥 ; 「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요구」 師大論文集 2輯 釜山大師大, 1975. pp. 233~244

13) 金宗澤 ; 前掲書, pp.70~76

A型 ; 意味材a+意味材a' (a와a'는 언어재료만 다를뿐 지향하는 의미주제는 같은 것이다.)

B型 ; 意味材a×意味材b (a와b는 각기다른 성질의 것으로 별개의 의미를 형성한다.)

C型 ; 材料材a+意味材b (의미재 b는 재료재 a와 결합함으로써 속담의 기능을 발휘한다.)

D型 ; 材料材a×材料材b (a와 b어는 하나만으로는 주제의미가 표시되지 못하고, 둘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E型 ; 意味材a (단어형태나 단문으로 이루어 진다.)

\* +는단순결합, ×는복합결합

14) 文貞子 ; 「俗談의 類型研究」 國語教育志1. 大邱教大 國語科, 1973. pp. 93~97

유형별로 정리하고 비율을 알아보고 있다.

張德順<sup>15)</sup>의 3인은 의미표현구조를 중심으로 <A型, A+A型, A+B型, B型, B+B型> 등 5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의 金宗澤의 분류체제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 점을 안고있다.

金善豊<sup>16)</sup>은 外形態, 內形態, 修辭態의 三態로 나눠 분류하고 있는데, 外形態는 外形構造의 領域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내형태와 수사태를 보면,

내형태는 주제와 언어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基本型 <A型, B型, C型, D型, E型> 등 5가지 유형과 變則型 <F型, G型, H型, I型, J型, K型, L型, M型, N型>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모두 14개의 유형을 설정했다. 수사태인 경우도 13개의 수사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속담의 유형분류를 종합적으로 적용시킨 포괄적이며 다각적인 분류라는 점에서 괄목할 점이 많다. 그러나, 너무나 내형태에서의 유형이 복잡화는 혼란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서 구체적 검토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沈在箕<sup>17)</sup>는 외형구조와 의미구조로 二大別하고 의미구조에서의 분류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① 의미갈등에 의한 의미속선의 상대성과 점층성
- ② 표면의미와 기본의미의 구분
- ③ 話用論的 함축미

등을 중심으로 화용론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外形構造의 領域

李殷相<sup>18)</sup>은 朝鮮歌謠의 기본인 四四調를 중심으로 한 韻律面에 주안점을 두고 <四四調類, 七五調類, 一句成調의 類, 混調의 類> 등 4가지로 분류했다.

15) 張德順의 「口碑文學概說」韓國口碑文學會。一潮閣。1971. pp. 195~198

A型 ; 간단한 단어나 어구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 속담이다.

A+A型 ; 개별적 의미를 중첩함으로써 속담의 기능을 발휘하는 형이다.

A+B型 ; 전후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뒷부분이 강조된다.

B型 ; 문면자체의 의미가 그대로 속담의 기능을 발휘한다.

B+B型 ; 전후 대우관계에서 뒷부분이 강조되는 수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 전후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

16) 金善豊 ; 前掲書. pp. 563-578 註는 後面 35p로

17) 沈在箕 ; 前掲書. pp. 223~230

18) 李殷相 ; 「註5」. pp. 236~238 참조





복잡화된 것은 주제의미부, 부주제의 미부, 종속의미부의 설정에 따른 전후배열에서 오는 결과다. 이를테면 B型の 속담 <자식은 제 자식이 좋고,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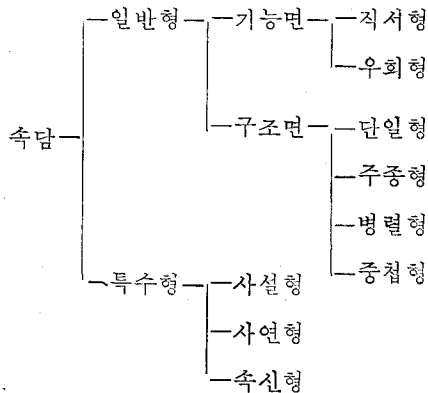
에서, ㉔를 주제의미부로 ㉕를 종속의미부로 보고 있는데 人事가 아닌 농사와 관계된 상황에서 이 속담을 적용하면 ㉕가 주제의미부가 되고 ㉔는 종속의미부이거나 부주제의미부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굳이 ㉔가 주제의미부이고 ㉕는 언제나 종속 내지 부주제의미부라는 고정관념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㉔와 ㉕의 위치문제도 그렇다. 주제의미부인 ㉔가 앞뒤 중 어느 일정위치에 한정시킬 수만도 없다고 본다. 위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체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집약화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결국 한국속담에서 형태분류에 따른 유형설정의 체계는 의미기능적 구조와 외형구조가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해결과제로 부각된 것은 이들 두 골격을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보완할 것이며, 그에 따른 유형별 명칭도 구조식의 記號化가 아닌 통용어로 명명할 것인가에 귀착되고 있다.

### Ⅲ. 分 類

前掲한 선학들의 유형분류를 참고한 다음, 이들 유형을 선별조정하고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겨냥하여 필자의 管見을 중심으로 유형설정에 임하였다. 아울러 각 유형별 命名도 시도하였다.

분류의 체계적 단계설정을 위하여 우선 530편의 제주도 속담을 一般型和 特殊型으로 二大別했는데, 이것은 속담의 통속성에 따른 話用論的 기능을 일차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 二大上位型을 주축으로 다시 下位型을 설정해 나갔는데 그 분류의 체계와 양상은 다음의 제시한 圖示와 같다.



## 1. 一般型

일반형이라 함은 그 속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의미전달에 장애요인이 없는 俗談群을 총괄한 것이다. 대부분의 속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형성과정이나 요인의 해명 없이도 터득되는 속담이다. 예를 들면,

① 물한디서 물 못 끌린다. (말(馬) 많은 데서 말 못 가려낸다.)

② 물 아래 삼년, 물 위 삼년. (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①의 속담은 누구든지 물건이 많은 곳에서는 좋은 물건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것임을 알게 되지만, ②의 속담인 경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 이 속담은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바쳐야 하는 괴로운 삶의 표현임을 모르고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②와 같은 부류의 속담이 아닌 ①의 속담처럼 의미전달에 장애요인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特殊型에 해당하지 않은 속담들이라면 어떤 형태에도 구애 받지 않고 일반형으로 다루었다. 이 일반형의 속담군은 그 의미전달의 기능과 짜임새에 따른 외형구조를 중심으로 種的인 下位型들이 설정됐다.

## A. 機能面

속담은 언어표현인 만큼 言衆의 인식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표현수법은 직접 아니면 간접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생리다. 다시말하면 속담의 기능적 역할은 그 의미전달에서 직접적 표현 형태와 간접적 표현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접적 형태의 것을 直叙型, 간접적 형태의 것을 迂廻型이라 했다.

물론 이 유형에 수사적 기교가 작용함으로써 여러 修辭態가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현기교의 형태일 뿐 속담 본래의 기능적 역할은 오직 직서적이거나 우회적인 것 중 어느 하나일 수밖에 없다.

## 1) 直叙型 (259편)

단도직입의 표면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속담이면 어떤 구조나 수사태로 되었던 간에 전부 직서형이 되는 것으로, 530편 중 48.87%에 이르고 있다.

<例 示>

○ 꿩장시 물장시 먹어사 먹었젠 혼다.



- (개장사 말(馬) 장사 먹어야 먹었다고 한다. )
- 놈이 집광 관장살인 퀘던 밥도 두영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끓던 밥도 두고 간다. )
- 미운놈 보킨 질 나는 맛 버실라.  
(미운놈 보려면 길 나는 발 경작하라. )
- 비바리 오장은 지피사 조꼭. 총각 오장은 야파사 좇나.  
(처녀 오장은 길어야 좋고, 총각 오장은 알아야 좋다. )
- 초신 아홉 배 꼬치명 돌아온 메누리 개가죽 혼 장이 안 싸다.  
(질신 아홉 켄래 꿩기면서 데려온 머느리 개가죽 한 장 가치도 없다. )

## 2) 迂廻型 (271편)

직서형과는 정반대로 간접적이면서 완곡하게 비유함으로써 重義的이고 암시적인 기능을 가진 속담들로서, 직서형보다 많은 51.14%로 나타나고 있다.

### <例 示>

- 벨걸음호당, 본걸음 잇나.  
(유별난 걸음걸이 하다가 본디 걸음걸이 잃는다. )
- 쟈눔 시불 얻어 먹나  
(빠르눔 세번 얻어 먹는다. )
- 새 똥에 업더지면, 개똥에 코 멘다.  
(소똥에 업어지면, 개똥에 코 멘다. )
- 가시어멍 장 웃인 간에, 사위 국 실픈 간에  
(장모 장 없는 판에, 사위 국 싫으 판에)
- 애비아덜이 몰 탕 가민, 이녀 몰 매여 똥 아방 몰 멘다.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가면, 자기 말을 매여 두고 아버지의 말을 멘다. )

## B. 構 造 面

통사론을 중심으로 한 의형구조에 따른 분류인데 그 유형의 명칭도 單一型, 主從型, 並列型, 重疊型으로 명명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통사구조에 의한 구문론적 이론에 일치하느냐인데 각 유형별 분류과정에서 언급하겠다. 구조상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文의 구성을 매개로 한 의형구조에서 논의되는 것이 논리의 일관적 체계를 위해 무난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 單 一 型 (334편)

단어 또는 句로 되었거나 單文의 형태로 된 통사구조에 기반을 둔 분류다. 530편 중 63.02%

를 찾아한다.

<例 示>

○ 개값

(개값)

○ 영장밭디 떡.

(葬地에 떡.)

○ 늙은 쉼 요물 말뚱 허랴.

(늙은 소는 여물 마다할까.)

○ 드라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한다.

(매달은 돼지가 그시린 돼지 타령 한다.)

○ 으지 웃인 웨삼춘 삼월보름 물찌에 죽언 강이 보말도 못 잡아 먹게 혼다.

(의지 없는 의삼춘 삼월보름 썰물 때 죽어서 게·고등도 못 잡아 먹게 혼다.)

## 2. 主 從 型 (86편)

주절과 종절에 의한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主와 從의 의미구조가 성립되는 통사구조에 기반을 둔 분류다. 이 경우 통사론에서처럼 주절인 후반부에 主題意가 나타난다. 문제는 전후 양분되는 주절과 종절로서의 결격사항이 없어야 하겠는데, 임의의 주어를 보충하지 않고서는 통사론에 따른 절의 자격을 상실한 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① 떡 진 사람 출추난, 말뚱 진 사람도 꺾 춘다.

㉠ ㉡

(떡 진 사람 출추니, 말뚱 진 사람도 같이 춘다.)

② 고운년 잡아 들어엔 허난, 살천년 잡아 들인다.

㉠ ㉡

(예쁜년 잡아 들어라고 하니, 살천년 잡아 들인다.)

③ 먹꼭 쓰레 허민, 가지낭에도 모람 온다.

㉠ ㉡

(먹고 쓰라고 하면, 가지나무에도 모람이 열린다.)

이들 속담 가운데 ①은 전반부와 후반부인 ㉠와 ㉡에는 '사람, 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주절과 종절이 공존하는 부분으로서 주종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②에는 ㉠와 ㉡에 주어가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고 ①의 통사구조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데는 더욱 무리가 따른다. 의미의 주어가 생략되었을 뿐 ①의 속담형태와 동류로 묶어야 하겠고, ③의 속담인 경우도 그렇다. ㉠에는 "모람"이란 주어가 있으나, ㉡에는 사실상 주어가

숨었다. 그렇다고 ①②의 속담과 다른 구조의 형태로 격리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분리시킬 때 유형수를 늘리는 결과 밖에 안 되므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된 A와 B의 속담들은 모두 주종형으로 분류하여 수용했다.

A의 속담들은 표면적으로도 주절과 종절의 통사구조가 완전무결하게 성립된 것 들이고, B의 속담들은 전후 주절과 종절 중 어느 하나가 아니면 두개 모두가 주어가 생략된것 들이다. 530편 중 16.23%에 해당한다.

<例 示>

- A) ○ 떡 진 사람 줍추난, 말뚝 진 사람도 꺾쥌다.  
 (떡 진 사람 줍추니, 말뚝 진 사람도 같이 쥌다. )
- 쇠털이 하넌 해도, 날이 한다.  
 (쇠털이 많다고 해도, 날이 많다. )
- 집안 망흐젠 흐민, 서당공중이 난다.  
 (집안 망할려면, 무당이 태어난다. )
- 마음이 고투사, 옷앞섭이 아문다.  
 (마음이 고투야, 옷앞섭이 아문다. )
- 동지 녀으민, 푸새도 새 마음한다.  
 (동지가 녀으면, 풀잎도 새 마음한다. )
- B) ○ 동배침 식개 넘어나민, 사을 동안 불 안 습나.  
 (동벋집 제사 지내고나면, 사흘 동안 불 안 췌다. )
- 비바리 늑어가민, 꺾착 지영 산드레 오른다.  
 (치녀 늑어가면, 매들짜 지고 산으로 오른다. )
- 유월 발창 사을 지저우민, 꺾만이 누영 먹나.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가만히 누워서 먹는다. )
- 노리 케기 혼 걸 먹젠 흐당, 지 케기 열 걸 잃은다.  
 (노루 고기 한 점먹을려다, 제 고기 열 점 잃은다. )
- 웨 속영 풀앗당 죽영가민, 대코쟁이로 눈 쥌렁 췌다.  
 (쇠 속여서 팔았다가 죽어서 가면, 대꼬쟁이로 눈을 쥌려서 췌다. )

3) 並 列 型 (85편)

이형구조가 對句나 對照로 된 對偶관계의 형태를 한테 묶은 분류다. 활용상황에 따라 전후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어느 한 쪽에만 主題意를 고정시킬 수 없는

대등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530편 중 16.01%를 차지한다.

<例 示>

- 동그린 독썩긴 병애기 되곡, 동그린 사름은 쓸배 난다.  
(굴린 달갈은 병아리가 되고, 굴린사름은 쓸모가 있다.)
- 밍 짝른 무덤은 셔도, 설완 죽은 무덤은 웃다.  
(병 짧은 무덤은 있어도, 설워서 죽은 무덤은 없다.)
- 아덜 못난 진 혼 집 망하곡, 딸 못난 진 양집 망한다.  
(아들 못난 것은 한 집 망하고, 딸 못난 것은 양집 망한다.)
- 큰일 처난 집 저녁 ㅁ십 식곡, 큰굿해난 집 저녁 ㅁ십 웃나.  
(큰일 치렀던 집 저녁 거리 있고, 큰굿했던 집 저녁 거리 없다.)
- 혼 놈 논 드리 열 놈은 걸곡, 열 놈 논 드리 혼 놈도 못 걸나.  
(한 사람 놓은 다리 열 사람은 걸고, 열 사람 놓은 다리 한 사람도 못 걸는다.)

4) 重疊型 (29편)

외형구조는 병렬형과 같게 보이지만 전후 대우관계의 것이 어느 하나만으로는 개별적 의미를 뚜렷이 살릴 수 없으므로 해서 속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대우관계가 중첩적으로 列擧됨으로써만이 속담의 기능이 살아나게 된다. 또 그 외형구조가 반복적 요소와 함께 종결어미가 불필요하다. 530편 중 5.47%에 불과하다.

<列 示>

- 건지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건더기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 놀다 죽은 염송애기나, 기다 죽은 황밭갈쇄나.  
(놀다 죽은 염소나, 일하다 죽은 황소나.)
- 드라멘 도새기나, 기시린 도새기나.  
(매달린 돼지나, 그시린 돼지나.)
- 에기 어멍 콤은 닷돼, 에기 업개 콤은 혼 말.  
(에기 어머니 품삯은 닷 되, 에기 돌보는 품삯은 한 말.)
- 잘 하여도 혼 구승, 못 하여도 혼 구승.  
(잘 하여도 한 가지 흥, 못 하여도 한 가지 흥.)

## 2. 特 殊 型

일반형인 경우는 속담의 통속성에 따른 의미해득이 평이한 속담군을 한데 묶은 상위형인데 반하여 이 특수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 간편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설조의 장형으로 되어 있다.
- ② 형성과정이나 요인이 간파되지 않고서는 잘못 이해되거나 전연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을 지니고 있다.
- ③ 그 지방의 독자적 향토성과 결부된 俗信과 습속을 담고 있다.

①을 辭說型 ②를 事緣型 ③을 俗信型으로 命名하여 분류했다. 일찍이 李殷相도 特殊俚諺을 설정한 바 있다.

“史乘·地理·制度·傳說·習俗·人物·物名 등으로 生成된 俚諺—오직 朝鮮國民만이 가질 수 있고 가지어야 하는 俚諺, 이런 俚諺을 일컬어 特殊俚諺이라 명명하고……”<sup>24)</sup>

### 1) 辭 說 型 (16편)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원형을 깨뜨리린 파격형인 것처럼 이 사설형의 속담들도 口傳的 간편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조의 장형을 이루고 있다. 어느 정도 분량의 것을 단형으로 하고 장형으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음절이 초과될 때는 장황한 느낌이 든다. 특히 30음절이 초과될 때는 과연 속담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갈 정도다. 그러나 분명히 속담으로 쓰였음을 볼 때 일단 특수형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李乙煥<sup>25)</sup>은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가면서 업힌 애기가 잡해 한다 빨리 걸으라 한다.>를 최장형의 것으로 제시하면서 30음절 전후의 것은 장형으로 보고 있다. 金善豐<sup>26)</sup>은 最長諺으로 58음절로된 <백년이 暫間이요, 萬世도 바쁜 것이요, 伯夷 叔齊와 盜跖가 羊을 잃기는 마찬가지로 당장에 한번 취하여 시비를 도무지 잊어버리니만 못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이것보다 5음절이나 더 많은 63음절의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한국최장의 속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후 대우관계의 구성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든 본사설형은 그 분량면에서 길게 표현됨으로써 함축성이 없고 산만하여 덜정제된 외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23음절 이상의 것들을 일단 장형인 사설형으로 보고 분류해 본 결과 530편 중 3.06%가 된다.

24) 李殷相 ; 「註9」 前掲書. p. 598

25) 李乙煥 ; 「韓國俗談의 어·귀·절·유형연구」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1971, p343

26) 金善豐 ; 前掲書, p. 566

<例 示>

- ㅈ서른에 유든난 영감을 만나난, 두불 시불 물던 밥도 썰어 달랜 앙얼혼다. (29음절)  
(깃서른에 여든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 번 깨물던 밥도 썰어 달라고 졸라덴다.)
- 돌명칭은 담이나 담곡, 쇠명칭은 잡아나 먹곡, 낭명칭은 불이나 습나, 사름명칭 무엇에 쓰리. (36음절)  
(돌 명칭이는 담이나 쌓고, 소 명칭이는 잡아나 먹고, 나무 명칭이는 불이나 떼지만, 사람 명칭이는 무엇에 쓰랴.)
- 정든님 이별은 하늘이 외우 일곱 번 칭칭돌곡, 부모님 이별은 눈물만 삼시 방울 뚝 떨어진다. (37음절)  
(집든 임 이별은 하늘이 왼쪽으로 일곱 번 뱅뱅돌고, 부모님 이별은 눈물만 세 방울 뚝 떨어진다.)
- 질삼맛 늙으니 죽언보난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고, 줌너 늙으니 죽언보난 일곱애비아들이 들르는 도곰수절이 하나이다. (48음절)  
(질삼발 늙으니는 죽어서 보니 무명소중이가 아홉이고, 해너 늙으니는 죽어서 보니 七父子가 드는 도곰수절이 하나이다.)
- 다짐어명 물은 딘 소왕이가 소왕소왕 놀음 들령 케자하니 웃음 제완 못 케곡, 원어명 물은 딘 반짓노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놀음 들정 케자하니 눈물 제완 못 켜다. (63음절)  
(계모 물은 데는 엉경귀가 꺼끌꺼끌 날을 들어서 케자고 하니 웃음이 겨워서 못 케고, 생모 물은 데는 나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날을 들어서 케자고 하니 눈물이 겨워서 못 켜다.)

2) 事 緣 型 (11편)

그 속담의 형성요인과 배경을 모르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연 터득할 수 없는 사연이 스며 있는 속담을 일컬어 사연형이라 했다. 어쩌면 속담의 생명인 통속성과 연관시켜 볼 때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됨으로써 보편성을 잃은 편협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속담의 형성은 생활습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향토적 생성배경과 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鄉土俗談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본도인 경우는 도서의 특수한 문화영역권에 속함으로써 韓本土와는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어쩌면 유별나다고보다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선학들은 앞서 실화형을 설정하고, 실화에서 속담이 형성되었으면 先說話後俗談型. 속담에서 실화가 형성되었으면 先俗談後說話型으로 잡은 것도 결국 사연형의 한 枝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연형 속에는 李殷相이 밝혔던 것처럼 설화만이 아니라, 전설·지명·인명·물명·습속·사승·제도 등이 발생요인과 배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총괄 포용하려고 사연형을 설정하게 되었다. 530편 중 2.08%에 해당한다.

<例 示>

○ 뭇물물에 손 뺌 매누리.

(두붓물에 손 뺌 머느리.)

현재도 그렇지만 두부는 혼인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음식으로 私家에서 직접 만드는데 그 공력은 대단했다. 이웃의 부녀자들이 만사를 물리치고 자기의 일처럼 모여들어 성심껏 만들어 낸다. 이런 노고의 과정을 통해 맞아들인 머느리이고 보면 결코 輕視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쓰다고 벨고 달다고 삼킬 수 없듯이 편익위주로만 대할 수 없는 本妻로서의 糟糠之妻를 드러낸 속담이다.

○ 두월이 감산에 가오듯.

(두월이 감산에 가오듯.)

‘두월’이는 머슴살이 하는 사내 이름이고 ‘감산’은 지명이다. 그러니 두월이라는 머슴이 감산이라는 마을에 갔다가 오듯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 유래는 지금의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의 金씨 가문에 두월이라는 우직한 머슴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인이 두월이에게 감산에 갔다 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다음 잠시 여가를 두고 돌아다 보니 두월이는 간 데 온 데가 없이 사라졌다. 이윽히 지난 후 혈떡이며 나타났다. 주인이 어디에 갔었느냐고 물으니, 감산에 갔다왔다는 것이다. 하두 어처구니가 없어 그림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왜 감산에 갔다오라고 안 했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뛰어갔다가 왔지 않습니까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심부름이며 초집이 없는 행동일까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본래의 의도와 벗어난 어리석은 심부름꾼을 야유할 때는 현재로 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 강정 아이들은 조밥 주켄 호민 안 울곡, 곤밥 주켄 호민 운다.

(강정 아이들은 조밥 주겠다고 하면 안 울고, 쌀밥 주겠다고 하면 운다.)

西歸浦市에 있는 江汀이란 곳은 옛날부터 江汀川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논밭이 형성되어 쌀이 생산되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쌀밥이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조밥이 희귀한 것으로 알았다는 속담이다. 현재는 관개시설을 통해 논밭이 종전보다는 증가되었지만 옛날에는 샘물이 흘러내리는 일부 低地帶를 제외하고는 전부 깡마른 밭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었다. 그러니 쌀밥은 제사 때나 생일 때쯤 아니면 먹기가 그리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쌀밥

향수증에 걸렸었다고 해도 파인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정에 사는 아이들은 쌀밥을 흔히 먹을 수 있던 환경임을 듯보이게 하는 생활상의 반영인 것이다.

○ 좁너 애긴 사흘만에 아귀것 떡인다.

(해너 애기는 사흘만에 썩은밥 먹인다.)

해너는 출산해서 사흘만 되면 입에서 밥을 씹고 즙액을 만들어 젓 대신 먹인다는 말이다. 현대 위생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비위생적이다. 하지만 당시의 생활여건으로서는 산모라고 해서 충분한 영양과 영양섭취를 통해 育兒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으로서는 꿈같은 얘기였다. 산후 삼일이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잠덕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고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달하고 만다. 또 자연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이고 보니 젓이 제대로 풍족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나마 밥이라도 있어서 깨물어 먹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었다. 그토록 강인한 해너의 생체관과 고충의 단면은 유약한 현대여성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 국 하영 먹으면 가시어멍 눈 빨라진다.

(국 많이 먹으면 장모 눈 망가진다.)

이 속담은 현대의 문화생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왜냐면, 옛날에는 가옥구조가 부엌에 무쇠솥을 얹히고 검불이나 짚을 빨감으로 삼아 국을 끓였기 때문이다. 이 때 식생활에서 중심되는 차림포는 밥과 국이 최우선이다. 특히 밥의 양이 적더라도 국이 많으면 배를 많이 채울 수가 있었기 국은 얼마든지 먹어도 식량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국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많이 끓여야 하니 연기의 피해를 자연스럽게 입제 마련이다. 그래서 장모의 눈은 일찍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 3) 俗 信 型 (22편)

속신과 습속의 밀접한 관계에서 형성된 俗信語 중 禁忌性과 豫兆性을 드러낸 것들로서 속담으로 활용되는 것이면 이를 일컬어 속신형이라 했다.

金聖培<sup>27)</sup>는 「禁忌俗信의 現代的 考察」에서 禁忌는 <타부 (Taboo)>로 표현된다고 하고, 특정한 인물·사물·현상·언어·행위등이 신성시되거나, 행동질천하는 것을 금한다든지, 꺼리(忌)는 불문율로 禁制되는 동시에 인간의 생활구조 속에 뿌리박혀 하나하나의 俗信, 俗說로 정립된다고 했다.

이렇듯 속신어는 민간신앙과 습속에 깊은 유대를 맺고 口傳해 오고 있는데, 현대적 안목으로 보면 비과학적이지만 전통적 생활습속에서 조명해 보면 합리적 生活訓으로서 당위성이

27) 金聖培 : 「禁忌俗信의 現代的 考察」 淸溪金思燁博士頌書記念論叢, 學文社, 1973, p. 83



있는 것이다.

金宗澤<sup>28)</sup>은 俗諺의 유형으로 禁制型, 勸獎型, 判斷型을 설정하고 그 가치로서 科學性, 倫理性, 心理性을 들고 있다. 崔來沃<sup>29)</sup>도 俗信語의 긍정적 관점으로서 과학적 합리성, 교육적 윤리성, 주술적 심리성을 들고, 인간의 원초적인 심성에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자연의 신비를 해석하여 개인과 단체의 생활을 이롭게 하려는 욕구에서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 俗諺 즉 俗信語는 속담과는 별개의 민족언어로 구분하여 논급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俗信語 중 속담으로 활용되는 것은 간추려서 속신형의 속담으로 다루었다. 속담이란 언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통속성을 띤 포괄적 受容體로 보기 때문이다. 530편 중 4.15%에 해당한다.

### <例 示>

○ 배엽 따러난 막대기 거찌지도 말라.

(뱀 때렸던 막대기는 건드리지도 말라.)

오늘날 뱀은 한낱 미물로 격하되어 버렸지만 옛날에는 토속신앙과 연관된 타부의 대상으로 여겼음은 익히 아는 바다. 근간에도 어느 마을의 처녀는 딴 마을 총장들은 과히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그 마을에는 뱀의 신의 조화가 작용한다고 보는 토속신앙관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뱀을 잘 위해야 가정과 마을의 안녕이 보장되고 농사나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巫俗祭禮가 행해졌다. 그러니, 뱀을 힘부로 다루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으니 꺼리게 마련이다. 뱀을 때렸던 막대기까지도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정도로 비약되었다. 그러나, 이 속담의 기능은 이런 속신에서 유발되어,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는 더 불나위 없이 모진 사람을 뱀을 때렸던 더러운 막대기에 비유하여 경계하는 말로 轉義되어 쓰이기도 한다.

○ 낮 씻을 때 물 하영 쓰민, 죽영 가민 다 먹어사 혼다.

(낮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죽어서 저승가면 다 먹어야 한다.)

甲寅年 흉년에도 먹다가 남은 것이 물이라고 했지만. 옛날이 물사정은 오늘날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져 내리는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본도는 지층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지하로 샘물이 스며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 봉천수나 냇물을 길어다 먹었거나 썰물 때 해변가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용했다. 그러니 음료수도 빠듯할 판인데 얼굴 정도 씻을 물이야 세수그릇 밑바닥을 감출 정도면 족했다. 食水를 낭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므로

28) 金宗澤: 「俗諺의 性格과 類型」- 俗諺의 類概念設定을 위하여 - 清溪金思樺博士頌書記念論叢. 學文社, 1973. pp. 493~503.

29) 崔來沃: 「俗信語의 性格研究」 崔正如博士頌書記念民俗語文論叢 同刊行委員會, 1983. p. 216

저승에 가서는 벌을 받고 고역을 겪어야 한다는 사후의 내세관을 적용시킴으로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비축하려는 自救策이 마침내는 건실하고 절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신앙심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지닌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죽어서 저승 가면 눈썹으로 건져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 보더라도 예감이 간다. 「濟州風土錄」에도 다음과 같은 식수난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물 문제는 심각한 생계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라산과 閔州地에는 물이 매우 적었고, 시골 주민은 5리의 거리에서 물을 길면 가까운 물이며 종일 한두 번밖에 길지 못하는 곳도 있다. 짚쌈이 많고 반드시 나무통으로 지고 다니는데 (여자가 많이 지어감) 이는 많이 길어가자는 것이다.”<sup>30)</sup>

○ 죽은 사람 길 치사 조은 고단 간다.

(죽은 사람 길 치야 좋은 곳에 간다.)

인생은 저승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고 보고, 來世를 위해 공을 쌓고 명복을 기원한다는 것은 葬禮後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었다. 장례를 치루고 돌아온 날 밤 무당을 통해 귀양풀이를 함으로써 亡人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 즉 극락 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巫俗行禮를 치렀는데 현재도 이 풍습은 이어지고 있다. 이때 무당은 망인의 영혼을 이어받아 유족들에게 못다 핀 정과 한을 토로하게 될 무렵이면 최고절정에 다달아 숙연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 이런 의식절차를 거쳐 버려야만 그 유족들도 후련한 마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으레 장례를 끝내고 귀가하는 날 저녁에 무당을 데려다가 呪文과 함께 굿을 해야만 망인에게 밝은 내세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호충은 상제도 하관 때 못 본다. (呼沖은 상제도 하관 때 못 본다.)

풍수설과 맥락을 함께 하는 습속으로서 葬事할 때 呼沖에 해당되면 喪制도 下棺 때 볼 수 없도록 禁忌하고 있다. 왜냐면 호충은 그 날의 일진과 상충된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구할 때나 하관시에 보면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수일 안으로 죽는다고 철저히 禁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 在來의 유교식 장례를 대부분 지내고 있는데 이것만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 노리도 서난 바닥에 들민 죽나.

(노루도 있었던 곳에 들면 죽는다.)

사냥꾼들은 노루를 잡을 때 보금자리로 정해서 살던 곳을 지키고 있으면 꼭 그 곳에 나타

30) 金 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 11

“漢拏及州邑地, 泉井絕少, 村民或汲水於五里 則謂出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 而多醜泉 汲必以木桶負行 (凡什物多 女負行) 取多汲也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루는 항상 일정한 통로를 이용하며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자기가 살던 근거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곳만 제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도 일단 아무리 정든 곳이라도 그 집을 팔고 떠났으면 제차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좋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노년층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들려주곤 한다. 그런 말을 듣고보면 꼭 가야 할 피치 못할 입장이 아니면 곳이 본디 살던 자리로는 가지 않은 습속이 되어 버렸다.

## VI. 結

序에서 밝혔던 것처럼 비록 본고가 제주도속담에 한정된 것이지만, 한국속담 전체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바탕을 고려하여 기존분류의 이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받아들여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도 있었지만, 이론과 실재가 걸맞지 않고 혼란을 빚거나 복잡다단한 분류관을 설정함으로써 더 난해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것도 있었다. 또한 분류된 각 유형별 명칭도 대부분 話用論에 따른 통용어로命名되어 있지 않고 A형, B+B형, a+b×a+b형……등등의 構造式으로만 드러냄으로써 도무지 어떤 형태의 유형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본고는 되도록 이론과 실재의 격차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집약적이고 간명한 분류체를 설정한 다음, 그들 유형별 명칭도 통용어로 명명하여 530편을 자료로 유형분류를 해본 결과 上位型으로 一般型과 特殊型을 설정할 수 있었다.

1) 一般型인 경우 기능면과 구조면으로 분류되는데 기능면에서는 直叙型和 迂廻型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그 표현내용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어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조면에서는 統辭論을 뒷받침한 4개의 외형구조에 중점을 두었는바 單一型, 主從型, 並列型, 重疊型이 그것이다.

단일형이란 한두 개의 단어나 句, 單文의 형태로 된 것이고, 주종형은 전후관계가 主와 從(주절과 종절)의 관계로 된 것이며, 병렬형은 전후가 대우관계로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 전후가 상호교류될 수 있는 것이다. 중첩형은 전후 대등한 대우관계로 구성된 점에서는 병렬형과 같지만 반드시 두 개 이상이 겹쳐지거나 반복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전후 어느 하나만으로는 속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종결어미가 불필요하다.

2) 特殊型인 경우는 辭說型, 事緣型, 俗信型으로 분류된다.

사설형이란 23음절 이상의 장형으로서 사설조의 63음절이나 되는 것도 있어 기존자료에는 없는 한국 최장형이 본도속담에 나타나 있다. 사연형은 그것이 형성요인과 배경을 파악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향토적 독자성과 내력을 지니고 있는 속담이다. 속신형은 사언형보다 더 향토성과 독자성이 강한 것으로서 島民의 전통적 민간신앙과 생활습속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형분류를 하는 가운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특수형에서 속신형의 설정이다. 사실상 民俗言語로서 俗諺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바 과연 이들을 속담으로 취급할 수 있겠느냐다. 물론 이들을 전부 속담으로 수용하려다가는 속담의 범주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 俗信的 속언들을 속담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도 남득이 가지만, 그렇고 전연 무관한 것으로 도외시하는 것도 어금니 하나를 잃은 격이 되고만다. 그러므로, 어떤 남득될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속담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끌어들이는 적절한 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管見을 제시해 둔다.

16) 金善豊 ; 前掲書, pp 563—578.

기본형	a	A형 :	주제의미부	+	Zero	= a + Zero형
	a	B형 :	주제의미부	+	종속의미부	= a + b형
	b		종속의미부	+	주제의미부	
	C형 :	b	종속의미부	+	주제의미부	= b + a형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 a + a형
D형 :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 a + a형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E형 :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 a' + a형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변치형	a	F형 :	주제의미부	+	종속의미부	} a + b × a + b ..... ∞형
	a		주제의미부	+	종속의미부	
	G형 :	a	주제의미부	+	종속의미부	} a + b × b + a ..... ∞형
		b	종속의미부	+	주제의미부	
	H형 :	b	종속의미부	+	주제의미부	} b + a × a + b ..... ∞형
		a	주제의미부	+	종속의미부	
	I형 :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 a + a × a + a ..... ∞형
		a	주제의미부	+	주제의미부	
	J형 :	b	종속의미부	+	주제의미부	} b + a × b + a ..... ∞형
		b	종속의미부	+	주제의미부	
	K형 :	a'	주제의미부	+	부주제의미부	} a + a'    a + a' ..... ∞형
		a	주제의미부	+	부주제의미부	

변칙형	L형 :	$\begin{array}{c} a' \\ \boxed{\text{부주제의미부}} \end{array} + \begin{array}{c} a \\ \boxed{\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a' + a \parallel a' + a \dots \dots \dots \infty \text{형}$
	$\begin{array}{c} a' \\ \boxed{\text{부주제의미부}} \end{array} + \begin{array}{c} a \\ \boxed{\text{주제의미부}} \end{array}$			
	M형 :	$\begin{array}{c} a \\ \boxed{\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begin{array}{c} a' \\ \boxed{\text{부주제의미부}} \end{array}$	}	$a + a' \parallel a' + a \dots \dots \dots \infty \text{형}$
	$\begin{array}{c} a' \\ \boxed{\text{부주제의미부}} \end{array} + \begin{array}{c} a \\ \boxed{\text{주제의미부}} \end{array}$			
	N형 :	$\begin{array}{c} a' \\ \boxed{\text{부주제의미부}} \end{array} + \begin{array}{c} a \\ \boxed{\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a' + \parallel a + a' \dots \dots \dots \infty \text{형}$
	$\begin{array}{c} a \\ \boxed{\text{주제의미부}} \end{array} + \begin{array}{c} a' \\ \boxed{\text{부주제의미부}} \end{array}$			

\* ㄱ는 體止 및 복합결합

## 參 考 文 獻

- 姜在哲 ; 「韓國俗談의 根源說話」白鹿出版社, 1980.
- 金 淨 ; 「濟州風土錄」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 金思燁 ; 「俗論論」, 大建出版社, 1953.
- 金聖培 ; 「禁忌俗信의 現代的 考察」清溪金思燁博士 頌壽記念論叢, 學文社, 1973.
- 金宗澤 ;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研究」국어국문학 34·35合併號, 국어국문학회, 1967.
- \_\_\_\_\_ ; 「俗諺의 性格과 類型」—俗諺의 類概念設定을 위하여—清溪金思燁博士 頌壽記念論叢, 學文社, 1973.
- 金道煥 ; 「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요구」師大論文集 2輯 釜山大師大, 1975.
- 金善豐 ; 「韓國民俗學大觀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 曺貞子 ; 「俗談의 類型研究」國語教育志1, 大邱教大國語科, 1973.
- 徐石演 ; 「獨逸俗談管見」—우리말 俗談과 對比해석—朴仁守博士 華甲記念論叢, 月刊行會, 1974.
- 沈在箕 ;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冠嶽語文研究第七輯別刷, 1982
- 李殷相 ; 「俚諺의 意義및 그 形式에 關하여」—朝鮮俚諺研究—東光 10號, 1927.
- \_\_\_\_\_ ; 「特殊俚諺과 共通俚諺」—朝鮮俚諺研究—東光 13號, 1927
- 李乙煥 ; 「韓國俗談의 어·키·절 유형연구」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1971.
- 李基文 ; 「俗談辭典」民衆書館, 1962
- 張德順 ; 「口碑文學概說」韓國口碑文學會, 一潮閣 1991.
- 崔來沃 ; 「俗信語의 性格研究」崔正如博士頌壽記念 民俗語文論叢, 同刊行委員會, 1983.

<Adstract>

As a material basis for this study, I classified 530 pieces of Cheju-do proverbs into small groups after a similar pattern. The result of this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 proverbs are divided into general forms and special ones.

1) General forms are classified into functional patterns and structural ones, while functional patterns are classified into direct expressions and indirect expressions. It is because the contents of proverbs must be expres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external form, structural patterns are classified into a unitary form, a master and servant form, a parallel form and an overlapping form. In a unitary form, proverbs are simple sentences made up of one or two words(phrases). In a master and servant form, proverbs are made up of a main clause and a dependent clause. In a parallel form, sentences are contrapositive and interchangeable each other. An overlapping form is similar to a parallel form in that sentences have contrapositive relations, but in an overlapping form, more than two sentences must overlap or repeat without conclusive ending, otherwise sentences can not function as a proverb.

2) Special forms are divided into a descriptive form, a meaning form and a folk-belief form. A descriptive form is a longstyle proverb peculiar to Cheju-do district with 23-63 syllables and the longest style in Korea. Proverbs with a meaning form are rich in local color and local history, so proverbs can not be understood without a good grasp of the formative cause and background of them. Proverbs with a folk-belief form are richer in local color and individuality than those of a descriptive form, while expressing the traditional folk-belief and life-style of Chejuans.

